



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.kiep.go.kr 137-747 서울시 서초구 역곡동 300-4 2005년 9월 20일

제05-33호

고유가의 경제적 충격과 주요국의 대응

박복영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부연구위원 (bypark@kiep.go.kr, Tel; 3460-1149)

송원호 국제거시금융실 부연구위원 (whsong@kiep.go.kr, Tel; 3460-1183) 外*

주요 내용

- ▣ IMF(2005)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유가가 오일쇼크 당시의 실질유가 수준인 80달러까지 상승해도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0.5~0.75%p 감소하는데 그칠 것으로 추정됨.
- ▣ 최근 유가상승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성장률, 인플레이션, 투자, 수출 등 각 측면에서 1970년대 오일쇼크에 비해 1/10~1/4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됨.
 - 오일쇼크 시기에는 실질유가 1달러 상승이 첫해에 경제성장률을 0.15%p 감소시켰지만, 1999년 이후 최근의 고유가 시기에는 0.04%p 감소시키는 데 그치는 것으로 분석됨.
 - 인플레이션율에는 +0.03%p, 수출증가율에는 -0.08%p, 투자증가율은 -0.13%p, 소비증가율에는 -0.07%p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됨.
 - 올해 연평균 유가(두바이유 기준)가 전년대비 20달러 상승한 54달러(9월 13일 현재 48달러)에 이르면 유가상승으로 경제성장률은 0.76%p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.
- ▣ 선진국들은 최근 고유가에 단기대응책을 마련하기보다 한편으로는 고유가가 물가-임금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금리인상으로 차단하고,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 효율향상, 석유비중 감축, 에너지 공급안정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 등 장기계획을 꾸준히 실천하며 대응함.
 -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일본은 석유소비량이 2010년에는 1990년 수준 이하로 될 것으로 전망되며, EU는 에너지소비량을 2010년까지 20% 추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함.
- ▣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에너지 효율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하고 에너지 소비효율도 계속 악화된 예외적인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,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장기정책이 절실함.

* 이외에 공동집필자는 김홍중 유럽팀장, 지만수 중국팀장, 정성춘 일본팀장, 김권식 연구원

1. 고유가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

가. 고유가 시대로의 진입

- 세계경제는 2004년 이후 배럴당 30달러 이상의 고유가 시대로 진입하였으며, 이런 고유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전망이다.
- 물가상승에 대한 고려없이 명목유가(두바이유 가격)로만 비교할 경우 유가는 각 시기별로 [표 1]과 같은 특징을 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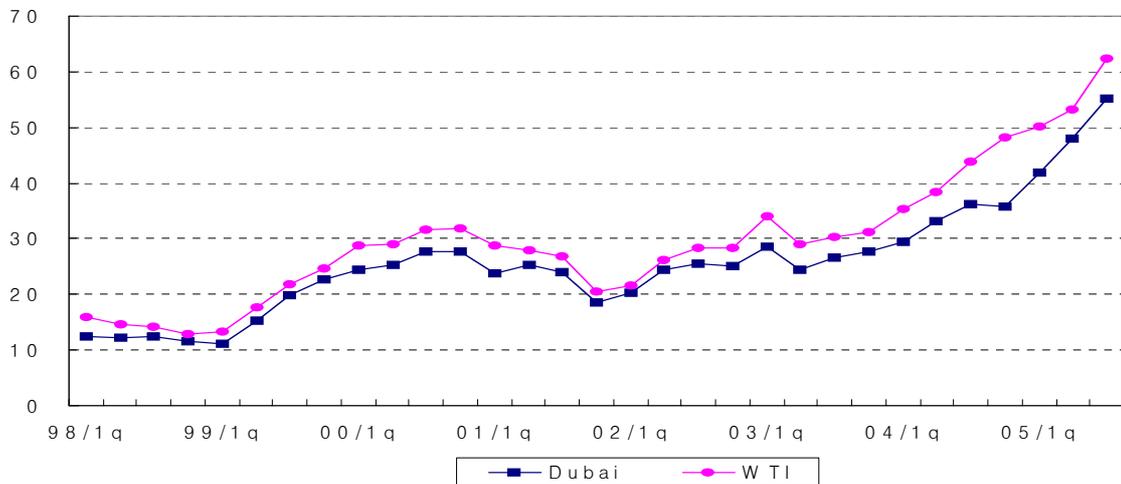
표 1. 각 시기별 유가수준

시 기	1972~78년	1979~86년	1987~98년	1999~2003년	2004년~
시기별 특징	고유가시대 진입기	고유가 시대	저유가 시대	고유가 시대 진입기	고유가 시대
유가수준	2~20달러대	30달러대	10달러대	20달러대	30~50달러대

- 2004년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국제유가는 약 100%에 이르는 급격한 상승으로 20달러대 유가시대에서 50달러대 유가시대로 진입함(그림 1 참고).

그림 1. 분기별 국제유가 추이(1998. 1/4분기~2005. 3/4분기)

(단위: 달러/배럴)



자료: 한국석유공사 데이터베이스

- 2004년 이후 고유가 시대 진입의 배경으로는 신흥경제의 석유수요 급증, 산유국의 생산능력 한계, 지정학적 위협의 만성화, 선진국 경제구조의 변화 등을 들 수 있음.
- 2003년 이후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신흥경제권의 석유수요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, OPEC을 비롯한 산유국의 생산능력은 거의 정체상태에 있어 수급조건이 매우 타이트한 상황임.
- 9.11 사태로 인한 테러와의 전쟁 이후 이라크는 물론 중동 전역에서 테러의 발생위험이 더욱 고조되어 석유공급을 위협하는 지정학적 불안요인이 만성화된 상황임.
- 미국, EU, 일본 등 선진국 경제의 석유의존성이 감소하여 고유가에 대한 내성이 강해졌고, 그 결과 “유가상승 ⇒ 경기둔화 ⇒ 석유수요 감소 ⇒ 유가안정”이라는 자동조정 메커니즘이 둔화되어 유가상승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.

나. 고유가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충격 추정

- 고유가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크기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, 경제구조의 변화 등으로 1970년대 석유파동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.
- 선진국의 석유의존도는 크게 감소했는데, GDP에서 석유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일쇼크 당시 5~7%였지만 최근에는 1~2%로 크게 감소하였으며, 에너지 중 석유의 비중도 60% 수준에서 40% 수준으로 감소함.
- 선진국 경제의 에너지 효율도 꾸준히 개선되어 부가가치당 에너지 소비량은 1970년을 100으로 했을 때 최근에는 50~60 수준으로 감소함.
- IMF(2005)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유가가 오일쇼크 당시의 실질유가 수준인 80달러까지 상승해도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0.5~0.75%p 감소하는 데 그칠 것으로 추정됨.
- 선진국 중 미국의 성장률이 유가상승 첫해에 0.8%p 감소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, 일본과 EU의 성장률은 각각 0.7%p와 0.6%p 감소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분석
- 만약 80달러 수준의 고유가가 오일쇼크 당시만큼 장기간 지속되고 통화정책당국의 신뢰가 훼손되어 임금-물가 상승의 악순환(wage-price spiral)이라는 2차 파급효과가 발생하면,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1.5%p 감소할 것으로 추정

- 개도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낮아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, 우리나라가 포함된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성장률은 0.7%p 감소할 것으로 분석
- 인플레이션율에 미치는 영향 역시 오일쇼크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는데, 선진국의 경우 0.9~1.3%p 추가 상승할 것으로 분석

표 2. 유가상승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추정*

(단위: %p)

	GDP			Inflation **		
	IEA(2004)	HSBC(2004)	IMF(2005)	IEA(2004)	HSBC(2004)	IMF(2005)
	유가 10\$ 추가상승 가정	유가 15\$ 추가상승 가정	유가 80\$까지 상승 가정	유가 10\$ 추가상승 가정	유가 15\$ 추가상승 가정	유가 80\$까지 상승 가정
미국	-0.3	-0.9	-0.8	+0.5	+2.4	+1.3
EU	-0.5	-0.6	-0.6	+0.5	+2.1	+0.9
일본	-0.4	-0.3	-0.7	+0.3	+0.9	+0.9
개도국 전체	n.a.	-0.3	-0.8	n.a.	n.a.	n.a.
아시아 개도국	-0.8	n.a.	-0.8	+1.4	n.a.	n.a.

주: * 가정된 유가상승 1년 후 GDP 증가율과 인플레이션율의 변화를 의미

**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

2. 고유가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

- 경제구조의 변화나 국제유가의 변동양태에 따라 유가변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다를 것으로 판단하고, 시기를 구분하여 영향을 추정하고자 함.
- 1970년대에 시작된 오일쇼크 시기, 그 이후의 저유가 시기, 최근의 고유가 시기의 세 시기로 구분하였는데, 정확한 분석기간은 아래와 같음.

기간 1: 1970. 1~1986. 12 (오일쇼크 시기, 단기에 유가급등, 공급요인 주도)

기간 2: 1987. 1~1996. 12 (저유가 시기)

기간 3: 1999. 1~2004. 12 (최근 고유가 시기, 유가상승 장기지속, 수요요인 주도)

* 외환위기 기간인 1997~1998년은 분석에서 제외함.

- 시기를 구분하여 영향을 추정하면 각 시기별 경제의 석유 의존도와 유가 변동 패턴의 변화를 감안할 수 있기 때문에,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한 추정에 비해 더욱 정확한 추정이 가능
- VAR(Vector Auto-regression) 모형을 통해 유가 상승 충격의 영향을 측정하였는데, 사용된 변수는 실질두바이유가, 산업생산지수, 소비자물가지수, 도소매판매액지수, 기업설비투자, 환율 등임.
- 모든 국내 변수는 생산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실질치로 변환하였으며, 두바이유가는 미국 PPI를 사용하여 실질치로 변환함.
- 유가변수는 계절조정을 하였으며, 다른 변수들은 전년 대비 변화율을 사용하여 계절효과를 제거함.
- 모형에는 3차의 time trend가 외생변수로 포함되었는데, 이는 유가의 장기적 변화추세에 대응한 조정효과는 상쇄하고 급작스러운 유가변화에 따른 충격만을 포착하기 위한 것임.
- 분석 결과 실질유가 1달러의 상승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1970년대 오일쇼크에 비해 최근에는 1/4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(표 3 참고).
- 오일쇼크 시기에는 실질유가 1달러 상승이 첫해에 경제성장률을 0.15%p 감소시켰지만, 1999년 이후 최근의 고유가 시기에는 0.04%p 감소시키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.
- 하지만 최근 고유가 시기의 성장률 효과는 1990년대 저유가 시기의 성장률 효과 0.03%p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.
- 유가 상승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가 이처럼 감소한 것은 유가 상승이 오일쇼크 시기에 비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조정기간이 길었고 물량부족사태는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.
- 그리고 오일쇼크 때와는 달리 물가도 안정되어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임금·물가 상승의 악순환과 같은 2차 파급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도 충격을 줄이는 데 기여함.
- 실질유가 1달러 상승이 인플레이션율에 미치는 효과는 최근에는 0.03%p에 그쳐 오일쇼크 당시의 0.23%p에 비해 1/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.

표 3. 실질유가 1달러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

(단위: %p)

	GDP 증가율	물가상승률	수출증가율	투자증가율	소비증가율
1970~86년	-0.15	0.23	-0.52	-1.30	n.a.
1987~96년	-0.03	-0.02	-0.03	-0.30	-0.03
1999~2004년	-0.04	0.03	-0.08	-0.13	-0.07

자료: 본 연구원 추정결과

- 실질유가가 1달러 상승하면 수출증가율은 0.08%p 하락하여 오일쇼크 당시의 1/7 수준이며, 투자증가율은 0.13%p 감소하여 오일쇼크 당시의 1/10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됨.
- 한편 소비증가율은 0.07%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가상승은 수출, 투자, 소비 중 투자의 위축에 가장 큰 충격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.
- 올해 연평균 유가(두바이유 기준)가 전년대비 20달러 상승한 54달러(9.13현재 48달러)에 이르면 유가상승으로 경제성장률은 0.76%p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(표 4 참고).
- 물가상승률은 0.52%p 인상하고, 수출증가율은 1.56%p, 투자증가율은 2.61%p, 소비증가율은 1.43%p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

표 4. 실질유가 20달러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

(단위: %p)

	GDP	물가	수출	투자	소비
20달러 상승	-0.76	0.52	-1.56	-2.61	-1.43

주: 1999~2004년 추세를 이용한 분석결과

3. 주요국의 대응

가. 일본

- 일본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두차례의 오일쇼크 직후를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했는데, 1990

년의 석유환산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3억 5천만kl에서 2000년 4억kl로 증가함.

- 그러나 석유의존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(1973년 77% → 1990년 58% → 2000년 52%), 석탄, 천연가스 및 원자력 의존도는 증가함(석탄은 15% → 17% → 18%, 천연가스는 2% → 10% → 13%, 원자력은 1% → 9% → 12%).
- 일본은 장기적인 에너지 수요를 억제하고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석유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, 에너지 절약시책, 신에너지 도입 촉진, 천연가스 등 청정연료로의 전환 촉진 등이 대표적 정책임.
 - 에너지 절약시책의 핵심은 에너지 효율 향상인데, 이를 위해 산업, 민생, 운수 등 각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치, 제품 등의 도입을 촉진함.
 - 신에너지 도입 촉진을 위해서는 전력공급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신에너지 이용을 의무화하고 태양열, 풍력 등의 에너지 도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실행함.
 - 또한 공급이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천연가스의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시설의 설비전환을 추진함.
-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일본의 2010년 석유소비량은 1990년에 비해서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.
 - 1차 에너지원으로서의 석유소비량은 1990년 3억 600만kl(58.3%), 2000년 3억 1,300만kl(51.8%), 2010년 2억 8천만kl(45%)로 그 비중과 절대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.
- 일본정부는 최근 고유가에 대해 특별한 국가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은데,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.
 - 첫째, 일본은 석유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에너지 대책을 수립해 실시해 왔고 이러한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대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임.
 - 둘째, 일본은 유가상승 이전부터 환경대책(이산화탄소 배출 삭감)의 일환으로 에너지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임.

- 셋째,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분야는 산업분야가 아니라 오히려 민생, 운수분야여서 특정한 행정적 대책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
- 향후 일본의 에너지 대책의 핵심은 신에너지 도입 촉진과 이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임.
- 특히 운수부문 및 민생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개발 및 제품이용을 촉진하는 대책이 핵심인데,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이용 촉진, 수소에너지를 이용하는 연료전지 개발의 촉진 등이 대표적임.
- 또한 신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해 전력회사가 신에너지를 이용한 전기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임.

나. EU

- EU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은 효율성 증대를 통한 수요의 감소와 대체에너지 개발을 통한 공급 증가에 있음.
- 화석연료는 기본적으로 유한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하고, 에너지 효율의 증대는 EU의 경쟁력을 높여 경제성장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.
- 에너지 절감은 도시지역에서 대기오염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서 「교토 기후변화협약」 준수를 가능케 함.
- EU 집행위원회는 2005년 6월 22일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비전을 담은 녹색서(*Green Paper on Energy Efficiency or Doing More With Less*)를 발간하고 이를 검토하기 위한 「유럽 지속가능 에너지포럼(European Sustainable Energy Forum)」을 출범시킴.
- EU 역시 최근 고유가에 대한 특별한 단기적 대응방안은 없으며, ① 효율성 증대를 통한 수요 억제, ② 경쟁 촉진을 통한 에너지 시장의 효율성 증대, ③ 대체에너지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, ④ 대외협력을 통한 공급 안정화 정책 등 중장기적 대응에 초점을 둬.
- EU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정책의 결과 부가가치당 에너지 사용량이 중국의 1/5, 미국의 1/2 수준을 유지함.

- 최근 EU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규제(2003년), 열병합 발전 촉진(2004년)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, 제품 및 전력에 대한 세제 지침(2003년), 에너지 효율성 및 에너지 서비스 지침(2003) 등을 도입함.
- EU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해 향후 2010년까지 에너지 총수요의 20%를 추가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, 2010년까지 연간 7천만 톤(2004년 원유수입량의 4%)의 석유소비 절감 목표를 설정함.
- 에너지 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EU는 역내 회원국의 가스·전력 시장 개방을 통해 역내 에너지 이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에너지 공급자의 경쟁과 에너지원의 가격인하를 유도함.
- 에너지 시장 개방과 경쟁 촉진의 결과, 영국(가스, 전력), 스웨덴, 핀란드(전력)의 경우 10~15% 수준의 가격인하효과가 발생하였고, 기존 회원국의 대부분은 약 20%의 소비자가 에너지 공급 계약자를 교체함.
- EU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활성화하여 에너지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인데, 2010년까지 총 에너지 소비의 12%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, 총 전력의 22%를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함.
-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금년 10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며,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에너지의 개발을 위한 EIE(Intelligent Energy for Europe program) 계획은 이미 시행 중인데 2003~06년간 총 2.5억 유로, 2007~13년간 약 8억 유로가 지원될 예정임.
- EU는 석유 및 가스 대외의존도가 2020년에 90%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, 에너지의 안정공급을 위해 대외협력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.
- EU는 핵심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최근 EU·OPEC간 장관급 격년회의 개최를 합의하고, EU·노르웨이간 연례회의 지속 개최, 카스피해 연안국과 정기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음.
- 특히 러시아는 EU 가스의 50%, 석유의 25%, 우라늄의 1/3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에 출범한 EU·러시아간 대화를 지속적으로 활용
- 2003년도 출범한 TEN(Trans-European energy networks) 프로젝트에 러시아도 참여 중이며, 현재 양국간에 투자, 수송인프라, 에너지교역,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태스크포스가 가동

다. 중국

- 중국은 2004년 이래의 유가상승을 장기적 추세로 보고, 이에 따른 종합적인 에너지 확보 전략을 추진
 - 장기적인 석유의 안정 수급을 위해 ① 해외유전에 대한 자주개발의 확대, ② 자원외교를 통한 석유수입의 지역적 다변화, ③ 다양한 석유 및 천연가스 수송로 확보, ④ 석유 비축제도의 도입, ⑤ 대체에너지의 개발 등을 추진

- 한편 2004년 현재 중국이 사용하는 에너지 중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22.7%에 불과하며, 석탄 67.7%, 천연가스 2.6%, 수력 7.0% 등의 구성을 보이고 있는데, 최근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오히려 감소
 - 중국의 석유에너지 의존도는 2000년 24.6%로 정점에 달한 후 2004년 22.7%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, 석탄의존도는 2001년 65.3%로 저점 후 다시 증가하여 2004년에는 67.7% 기록
 - 이는 유가상승 이후 저렴한 석탄 이용이 늘어났기 때문인데, 중국은 석탄 사용에 따른 환경 오염문제는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보고, 풍부한 석탄 사용을 촉진

- 최근 고유가에 대해 중국은 단기적으로는 유류세 부과계획을 연기하고,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절약과 석유대체정책을 추진
 - 중국은 원유 수요의 40%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, 최근 고유가로 인해 2005년 5월까지 원유 수입 물량은 5.1% 증가에 그쳤으나 수입금액은 46.1% 급증하여 부담이 가중됨.
 - 중국은 2004년 말부터 휘발유와 디젤유에 대한 유류세 부과문제를 검토하고 있었으나, 최근 고유가로 인해 도입이 지연됨.
 - 중국은 미국과 함께 저유가(최종제품 기준)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로 휘발유 소매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%선에 불과(프랑스, 독일, 일본 등은 60% 이상)한데, 그 결과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3.6~4.5위안(약 450~600원) 수준임.
 - 국내 유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통제하고 있는데, 휘발유 가격의 경우 2005년 들어 7월 23일까지 모두 다섯 차례 인상되었으나, 모두 리터당 0.1~0.3위안(12~40원) 수준의 소폭

인상에 그침.

- 중국은 최근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국내가격정책, 유류세 도입 연기를 통해 저유가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며,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가격경쟁력 유지 등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보임.
- 한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05년 6월 에너지 절약과 석유대체를 위한 10대 중점사업을 실시기로 하고 그 내용을 중국의 11차 5개년계획(2006~10년)에 반영기로 결정함.
- 「에너지절약중장기계획」에 따라 야금, 석탄, 전력, 석유화학, 건재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의 1천개 중점관리기업을 선정 에너지 전략 목표를 설정할 예정임.
- 에너지 고효율 소형차에 대한 조세우대, 에너지 가격체계 개혁, 에너지 절약형 제품의 정부 구매 확대 등을 실시기로 함.

4. 정책적 시사점

- 지난 1년 반 동안 국제유가는 100% 가량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으며, IMF는 유가가 80달러까지 상승해도 세계경제 성장의 둔화 효과가 0.8%p 내외에 그칠 것으로 추정함.
- 이러한 충격의 감소는 비교적 완만한 유가상승, 물량부족을 동반하지 않았다는 점, 신중한 통화정책을 통한 2차 파급효과 억제,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노력의 결과로 판단됨.
- 우리 경제의 경우에도 최근의 유가상승이 미치는 충격이 1970년대 오일쇼크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들었지만, 미국, EU,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.
- 올해 연평균 유가가 전년대비 20달러 상승한 54달러에 이르면(현재 48달러), 성장률은 0.76%p 감소, 인플레이션율은 0.52%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.
- 고유가는 총수요 중 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투자위축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과 대·중소기업간 고유가 부담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.
- 선진국의 대응방안을 볼 때, 고유가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응책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됨.

- 단기적으로는 유가상승-물가상승-임금상승이라는 악순환을 피하고, 통화당국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자율정책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.

※ 미국과 EU는 고유가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자 최근 이자율 인상을 통해 고유가의 2차적 파급효과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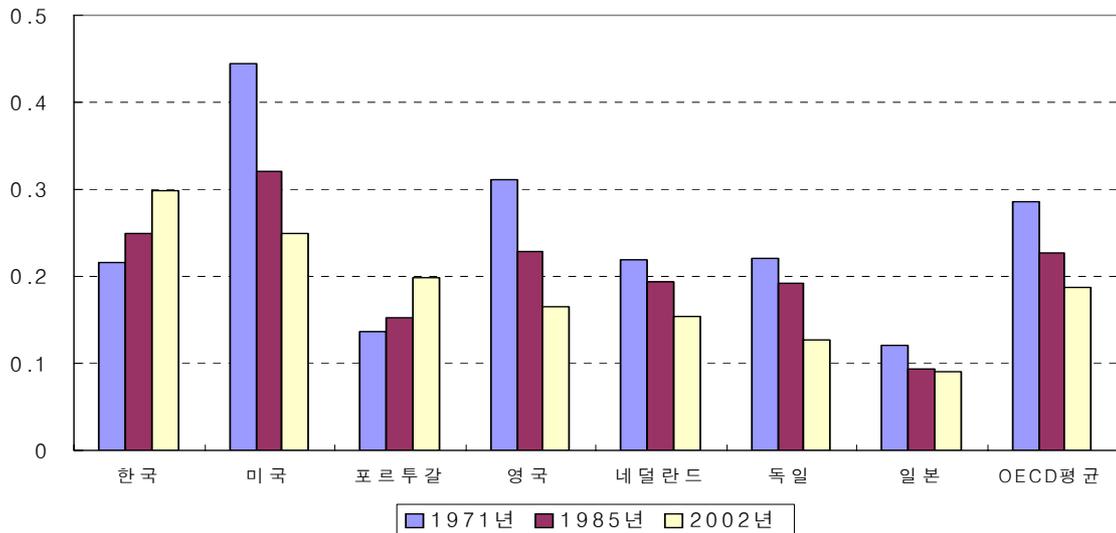
- 유류세 감면 등을 통한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 인하는 물가안정에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향상을 저해하여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.

※ 에너지 효율이 월등히 높은 선진국들도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, 오히려 인도 등 개도국조차 유류보조금 폐지를 통해 석유소비 억제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임.

- 간접세인 유류세가 갖고 있는 역진적 소득 재분배 효과는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상쇄시키는 것이 바람직함.

그림 2. 에너지 소비 효율성지수 추이의 국가간 비교

(단위: TOE/천 달러)



자료: IEA

■ 고유가에 대한 장기적 정책에서 에너지 효율향상,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석유비중 감축, 에너지 공급 안정성 강화 등이 핵심내용임.

-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에너지 효율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하고 오일쇼크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효율이 계속 악화된 예외적인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,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획기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.
- 2002년 부가가치당 에너지소비량(1995년 달러 기준 1천달러당 석유환산 톤수)을 보면 한국은 0.30으로 미국(0.25), 독일(0.13), 일본(0.09) 등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높으며, OECD 평균(0.19)에 비해서도 약 50% 높은 수준임.
- 그리고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에너지 효율이 1970년대 이후 계속 개선되는 추세에 있음에 비해 우리나라는 악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.
- 선진국이 과거에 비해 최근 고유가의 충격을 훨씬 적게 받은 것은 오일쇼크 이후 지속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.